



어촌관광과 수산물 소비촉진에 관한 소고



박 성 우
해양수산부 사무관



1. 들어가면서

어촌은 어업인들과 지역민들이 생업을 영위하는 장소라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포구가 있고 그 뒤에는 산이나 들을 배경으로 하는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아름답고 경치가 좋은 곳을 연상시킨다.

최근 주40시간 근무가 확산되는 경향 속에 어촌관광이라는 말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도 어업인들의 어업의 소득 확산 차원에서 어촌관광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여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사실 관광은 이미 굴뚝 없는 최대의 산업으로 많은 고용과 소득을 창출하는 미래형 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정부의 전략적인 대규모 투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달러 유출 없는 국

내 관광에 대한 발전방안도 미흡하지 않나 생각된다.

국내 관광의 추세는 다양한 테마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고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어촌관광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촌관광개발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데 우선 대표적인 것이 횡집이 난립하고 또 먹고 마시고 내지는 한번 바닷바람을 쐬는 정도의 획일적인 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어촌이 갖는 다양한 유형별 개발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역사와 문화적으로 단절되고 전통성이 무시되는 단순히 지역발전의 개념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어촌 개발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다양하게 유형별로 또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되어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어촌관광과 수산물 소비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한다.

2.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현황과 문제점

2005년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는 4,169천톤으로 2001년 3,260천톤 대비 약 21%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1인당 순 소비량도 44.5Kg으로 세계 수위를 다투고 있다. 그러나 국내생산은 2005년 2,714천톤에 머물러 자급율은 65.1%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데 즉, 수산물 소비는 꾸준히 늘어났고 앞으로도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고급 수산물 소위 계류, 새우류 등을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서술에서도 인지할 수 있듯이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좋지만 그에 따라 수산물 수입도 늘어나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고 일반적인 수산물 소비촉진 운동은 자칫하면 수입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산물 소비촉진 정책을 펼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수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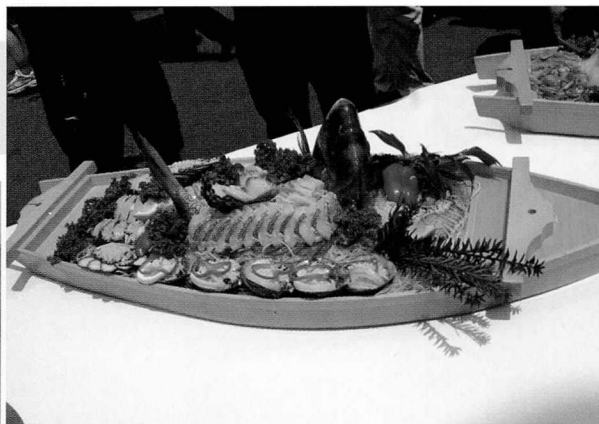
그렇다면 향후 우리는 어떻게 수산물 소비촉진 정책을 펼칠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는데 본 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어촌관광을 통한 지역 특산 수산물의 소비 확대를 중심으로 그 시사점을 제시하는 선에서 의견을 개진코자 한다.

3. 어촌관광의 유형별 분류

현재 우리나라의 어촌관광에 대하여 유형별로 분류하여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해수욕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말 그대로 해수욕을 즐기는 관광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바다 낚시형인데 이는 소위 낚시를 즐기는 취미형 관광행태로 볼 수 있으며 세 번째는 근자에 들어와 확대일로에 있는 해양스포츠 또는 레포츠형으로서 윈드서핑과 스쿠버 그리고 수상스키나 기타 장비를 이용하는 취미형 관광행태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역시 최근에 확산 일로에 있는 소위 체험형 관광으로 갯벌 체험, 철새도래지 체험, 어업 체험





등을 들 수 있다. 소위 교육적인 차원에서 가정에서나 학교 등에서 날로 확대되고 있는 관광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은 정부 당국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 다섯 번째 유형으로는 어촌 경관의 감상과 휴양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비교적 정적인 형태의 관광 유형으로 볼 수 있으나 관광지에서의 체류를 수반하는 것으로 어업의 소득확보 차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형태로 볼 수 있다. 여섯 번째로는 어촌역사문화형으로 해양관련 지역축제 등에 참석하거나 전통 어촌민속문화를 즐기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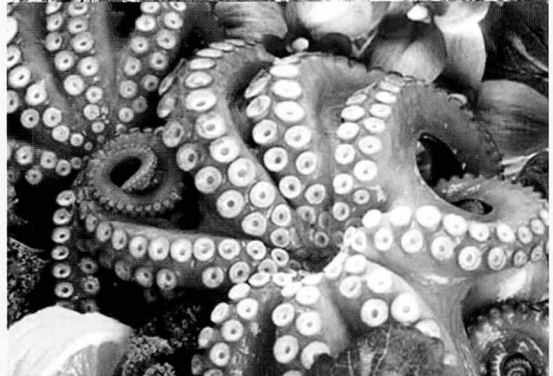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유형이 오늘 본 고에서 관심있게 다루고자 하는 수산물구매와 시식형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 관광을 보고 즐기고 느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로 먹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맛을 따라 관광을 즐기는 매니아층도 형성되는 등 지역 특산 요리에 대한 관심이 과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수산물에 대한 관심은 소위 웰빙트렌드 속에서 더욱 늘어나고 있어 매우 주목하여야 한다고 본다.

모두 잘 알다시피 홍콩의 해산물 요리 식당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관광상품이 되어 전 세계인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수산물 소비를 확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으로서 고용창출 등에 대한 부가효과도 엄청나다는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4. 수산물 구매/시식형 유형의 관리 및 개발 방안

수산물 구매와 시식은 종래의 관점에서 볼때 가장 왕성한 관광활동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주로 도회지 근교의 어촌에서 젓갈류나 지역의 특산물을 구매하거나 소위 계모임 등을 통해 횡집이나 식당에서 수산물을 먹고 즐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산물 시식이나 구매활동이 활발한 어



촌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특히, 시장의 정비, 식당의 위생수준 향상, 종업원의 친절도 제고, 오페수 처리 강화, 도로 등의 편의 시설 확충 등이다. 이러한 지역은 당일형 관광이 많기 때문에 관광시설의 다양화나 여러 가지 테마 등을 홍보하여 체류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의 수립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수산물 구매나 시식형으로 대표적인 어촌관광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일본의 경우 지바현의 호타어촌의 식사시설을 들 수 있다.

도로변에 위치한 호타어촌은 신선한 지역수산물을 이용한 식사시설 및 마리나 시설 유치로 어업과 함께 관광사업에 주력하는 어촌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주로 가족단위의 내방객을 타깃으로 지역 특산 수산물요리를 제공하여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수산물 요리 판매에 따른 직접인 소득 창출은 물론 식당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부가되는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

국내로 눈을 돌려 보면 제주 성산읍 오조 어촌계는 소위 전복죽의 메카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 대중 매체를 통해 여러번 소개되어 날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오조 어촌계의 전복죽은 일반인이 운영하는 식당이 아닌 해녀들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이며 가격이 비싸지 않고 전복이 신선하고 또 전복의 내장을 갈아 전복죽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울산 정자 어촌계의 코너식 수산물 직판장 운영 등도 매우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는데 그 성공원인은 신선한 수산물의 사용, 호객행위 근절, 적정 가격 준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외에도 태안의 대하 축제, 서천의 쭈구미 축제, 고성 명태 축제, 마산의 아귀 축제, 인제 빙어 축제, 송정 미역 축제, 고창 수산물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 서산 간월도 바다음식 축제, 양양 연어 축제, 강경 젓갈 축제, 부산 자갈치 축제, 광천 토굴 새우젓 축제, 남당리 대하 축제, 부산 명지 전어 축제, 진도 참전복 축제, 주문진 오징어 축제,

울릉도 오징어 축제 등이 소위 수산물 시식을 매개로한 관광 유발 행태로 볼 수 있으며 비록 시기적인 제약은 있지만 적잖은 어업의 소득원이 되고 있다고 한다.

5. 맺으면서

서두에서도 언급 하였듯이 본고는 학문적인 심도있는 연구결과를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단상과 시사점을 제기하는 차원이므로 앞으로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는 것을 전제로 몇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통상 우리 어촌은 전형적인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즉, 경관이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횡집타운이 조성되고 그 앞에는 불법 구조물의 휴식공간이 무질서하게 난립되고 있다.

우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횡집타운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환경과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별도의 주차공간을 조성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는 개념을 도입해야 된다고 본다.

아울러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아무리 좋은 시설과 음식이라도 친절과 소비자의 신뢰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지역 특산 수산물이 부족하다고 값싼 수입산 수산물을 이용하는 행위 등으로 소비자의 불신을 얻게 되면 그야말로 10년 공부 도로아미타불 격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다양한 수산물 소비촉진 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 운동이 자칫하면 수입산 수산물의 소비만 부추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에 가장 효과적인 국산 수산물 소비촉진 정책은 바로 어촌관광과 연계한 지역 특산 수산물의 소비촉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이와 관련한 심도 있는 정책연구가 이루어져 어촌관광도 활성화되고 국산 수산물의 소비도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